

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특심한 사람 – 엘리야

왕상 19: 10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

청년의 열정 주님께 바치면 – 재림교회의 희망이 되길

열정 – 지식에 쫓아나지 않으면 문제다.

**롬 10:1-4** <sup>1</sup>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

<sup>2</sup>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<sup>3</sup>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<sup>4</sup>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열정이 성경의 지식을 쫓아 나지 않으면 옛날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다.

**고전 4:4**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

**빌 3:6**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

자기의 생활이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. – 그런 완벽한 생각이 예수 핍박, 제자 죽이는 걸로 나타남. 그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.

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고백 –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.

**빌 3:1-9**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**해로 여길 뿐더러** <sup>8</sup>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**배설물로**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

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까? 약을 먹는 것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.

자기가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버리지 못 한다.

바울은 배설물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해롭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.

자랑거리 –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, 가말리엘 문화에 배운사람이라고 학문을 자랑한다.

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버리지 못 한다.

과거에 좋았던 것을 잡고 있으면 **진취적으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.**

진리를 찾아 바르게 가는데 방해가 된다.

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구해야 한다.

**딤후 2:15** 네가 **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**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

오늘 날 예수님을 믿을 길은 오직 성경이다. 다른 길은 없다.

종교들은 다 경전을 가지고 있다.

불교-불경. 이슬람-코란. 유교-사서삼경 (사서오경)

삼경은 시경, 서경, 역경, 사서는 대학, 논어, 맹자, 중용

**행 17:11**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

**벤전 1:8**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

렘 29:8 너희가 곧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(믿지말라)

보지도 못한 **예수를** 젊은 열정을 바치고 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?

무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.

**예수를** 믿을 수 있는 이유는?

롬 10:17 **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**

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

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위험이 없을 것이다.

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면 문제가 생긴다.

마 1:21 **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** 하니라

죄인이 아니면 구주가 필요없지 않을까? 그러나 필요 안 한 사람은 없다.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.

- 지금은 죄인이 아닌데 앞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하여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.

**Προκρούστης** 그리스 신화에 보면 ‘프로크로테스’라는 괴물 - 이 괴물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 지나가면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다. 동굴인 자기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는데 그 침대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다리를 늘려서 죽이고, 그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침대의 길이에 맞추어 다리를 잘라서 죽였다는 괴물이다.  
-자기 주장을 논리에 맞추어.

**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한다.**

눅 10:25-26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<sup>26</sup>

예수께서 이르시되 **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**

고전 4:6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

사 55:8-9 여호와와의 말씀에 **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<sup>9</sup>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**

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. 어떻게? 우리는 땅과 같이 낮은데... 이에 대한 대답을 10-14 절

고전 2:9-13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<sup>10</sup>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<sup>11</sup>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<sup>12</sup>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**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<sup>13</sup>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<sup>14</sup>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**

일찌기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심 - 예수님께 것을 가지고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심.

요 16:12-14 <sup>12</sup>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<sup>13</sup>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**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<sup>14</sup>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**

말씀을 펼 때마다 깊이 기도하고 굴복해야 한다.

모세가 불꽃 가시떨기 나무 보러 갔을 때

출 3:1-6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...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**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**

룻 4:8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.

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.

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전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. 이런 것 다 벗어나야 한다.

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듣기 위하여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. 그러면- 성령께서 거룩한 지식으로 인도하신다.

열심이 특심한 것이 거룩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.

이런 말씀의 경험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길. 어디 가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서길 바란다.